

2. 죄와 회개

2. 죄와 회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서두에 배치하고, 예수의 공식적인 활동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 비로소 시작된다(막 1:14). 요한복음과는 달리(요 3:24),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역이 겹치지 않는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3:2; 4:17). 죄와 회개—모두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먼저 그 용도를 살피고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후대 교리에 끼워 맞추지 않은 순수한 문학적 표현으로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죄와 회개는 무슨 뜻이고 그 기능은 무엇일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막 1:4).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고, 예수 또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이 세례를 받는다(막 1:5, 9). 그런데 예수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거침돌이 된 듯하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 3:14) 반문하고, 요한복음은 예수가 세례 받았다는 점을 직접 기술하지 않고, “예수가 요한 앞에 나왔다”(1:29)는 말로 대충 얼버무린다. 죄 사함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 은유적, 상징적 의미를 찾아볼 시점이다.

회개에 대하여.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침, 고침, 애통해 함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한다고 말한다. 죄의 의미는 조금 후에 논하기로 하고, 우선 회개의 성서적 의미와 용도를 살펴보자.

우리말이나 영어와는 달리,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오(μετανοέω)는 직접 목적어 없이 홀로 쓰이거나 혹은 다른 문구와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부터”(ἀπό, ἐκ) 회개하다(렘 8:6; 계 2:21-22; 9:20-21; 16:11), “...에 대해”(περί, ἐπί) 회개하다(렘 18:8, 10; 욥 2:13; 욥 4:2; 행 8:22; 고후 12:21) 등이다. 특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 3:2),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막 1:15)의 예문에서 보듯, 관련된 문구 없이 회개라는 말이 홀로 쓰일 때는 무엇을 회개하는지, 그 사전적 의미로 읽으면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다.

또 하나 문제는, 인간 편에서 신(하느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다.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할까? 성서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아모스 7:3, 6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주여 이 일을 돌이키소서”(μετανόησον) 라고 간청한다. 같은 동사 메타노에오를 명령어법으로 쓰고 있다.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두 낱말의 합성어다. 노에오(νοέω)는 마음(νοῦς)의 동사형으로 ‘마음 씬, 생각하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메타(μετά)는 보통 제2격(genitive case)에서는 ‘함께(with)’라는 뜻을 그리고 제4격(accusative case)에서는 ‘이후에(after, behind)’라는 뜻을 갖는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뜻이 있다. 메츠거(Metzger) 교수는 3개의 표현을 통해 ‘변화’의 의미를 찾아낸다(Bruce M. Metzger, *Lexical Aid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3d ed., p. 83). 그가 제시하는 3개의 예는:

1. μεταβαίω (I pass from one to another, depart)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떠나다;
2. μεταμορφόω (I change to another form, transform) 다른 형태로 바꾸다, 변형하다;
3. μετανοέω (I change my mind or purpose, repent) 내 생각과 목적을 바꾸다, 회개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회개란 기본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행위다. 감정의 변화라기 보다, 뜻과 의지의 확립이고 변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4:17)는 선포는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어떤 상태와 대상을 염두에 둔 말이다. 특히 마가복음의 주제에 해당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이런 차별화 선언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

2. 죄와 회개

세상의 이데올로기/가치관/복음에 대한 ‘마음 씌을 바꾸고’(μετανοέω, 회개하고), 이제는 하느님의 복음(막 1:14)을 따라 살라는 말이다. 회개는 통회 자복보다 더 뿌리 깊은 가치관/신앙의 변화다.

죄에 대하여. 예수도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 만일 예수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했다면 기독교 신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흠이 있어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죄란 무슨 의미일까?

신학적 가치관단을 일단 접어두고, 현실에서 출발해 보자.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부터 잘못된 원인을 미루어 짐작하는 편이 (죄의 기독교적 색채를 벗기고) 비종교적으로 보다 쉽게 죄의 개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가리켜 죄라고 이름하고 있나? 왜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무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전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이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롬 5:13). 무슨 말이고 하니, 성서(토라, 율법)가 죄라고 규정한다고 어떤 행위(말, 생각, 행동)가 죄가 되고, 아니라고 해서 아닌가? 그런 판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판단의 대상/경험은 존재했다는 말이다. 오늘날의 실례로 보면 노예제도가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죄로 여긴다. 차이는 이를 판단할 법이 있느냐 없느냐다. 단지 의식/판단이 나중에 왔을 뿐 그 대상은 이미 존재했다. 성서가 죄라고 했으니 죄다—그런 논리로는 죄의 개념을 비종교적으로 풀지 못한다. 오히려 성서를 빌어 지금까지 무혐의로 방치된 제도/의식/행위를 정죄함에 더 큰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성서 자체의 권위라기 보다, 그것을 남긴 공동체의 집단적 의식의 발로다. 새로운 깨달음이다.

불교에서는 죄라는 표현 대신 모든 고통은 집착(아집, 무지)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이 원리를 설명한 것이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四聖諦)인데, 탐·진·치(貪瞋癡--탐욕, 분노, 무지)의 집합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를 멸(滅)하는 길(道)을 가르치는 수행법이 팔정도(八正道)다. 부처가 깨달았다는 이 4성제, 8정도, 12연기(十二緣起)는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데, 후에 대승 불교는 이를 비판하고, 재해석한다. 인간의 현상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생각과 감정이 일으키는 작용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크게 다섯 덩어리/꾸러미, 곧 오온(五蘊)—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사물, 느낌, 생각, 행위, 의식)—이라 불리는 5 가지 마음 작용이라는 이해다. 대승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사멸/멸시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죄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 생각 등은 단지 관리 대상일 뿐, 그 본성은 본래 청정(淸淨)하다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본래 청정한 것은 공(空) 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온개공(五蘊皆空). 색·수·상·행·식 모두가 공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時空 空卽時色). 새로운 공사상(空思想)의 등장이다.

각설하고, 죄의 성서적 의미는 ‘과녁을 벗어나다’인데, 이 또한 굳이 종교적 의미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道)에서 벗어남이 죄다. 문제는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누가 정하는가다. 종교와 철학의 스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근본 이해는 같다. 창조질서, 인간의 길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세상에서는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의 길을 정하고, 이것의 절정은 제국주의다. 성서가 말하는 로마제국이고, 이에 대응/대항하는 개념이 하느님 나라인데 이것은 다음 장의 토의 주제다.

월터 윈크는 그의 책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에서, 지배체제(Domination System)란 “권세들의 전체 네트워크(연결망)가 우상(偶像)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 보았다(36). 아울러 육체를 따라 산다는 의미, 곧 (우리들 주제로 돌아와) 죄에

2. 죄와 회개

빠져있다함은, 인간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타인의 의견에 굴복하여 외면화된 자신,” 다른 말로 “지배체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본다(134, 135). 또한 “타락”이란—같은 의미에서, 죄란— “단지 우리 모두가 지배체제의 조건들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153-154).

결국 성서적 의미에서 죄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대치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이의 뜻—다른 신, 혹은 다른 가치관—을 따르는 것으로 이는 마음가짐(정체성) 뿐 아니라, 선택과 행위(행동윤리) 일체를 포함한다. 구약시대에는 바알로, 신약시대에는 로마제국으로 상징되는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은 네 하느님이 누구인가? 를 묻고 있다. 이것이 고대인들과 성서기자들의 언어였다면, 이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네 철학/가치관/복음이 무엇인가 이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가치관/복음을 떠나 다른 가치관/복음을 쫓는 행위가 "죄"다. 인간 본연의 삶의 모습을 예수가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세상의 가치관/복음/축복을 얻기 위해 기독교에 귀의하고 교회생활을 한다면, 이는 하느님과 맘몬을 함께 섬기는 행위며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어쫓는다 하는 말과 같다(막 3:22). 예수와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결과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논할 때 등장하는 메류가 바로 하느님과 맘몬—이 둘을 통용/혼동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하느님과 그 뜻을 따르려는 사람(성령)을 세상 이데올로기(더러운 영)와 동일시 한다면, 이는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성모독죄다.

믿음. 죄와 회개와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다. 이 또한 평범한 일상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일단 어떤 신조에 동의한다는 식의 교리적 의미에서 믿음(*credo, creed*)은 제쳐두기로 한다. 복음서에서 믿음이란 아직 그런 발상이 없던 시절에 쓰인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믿음이 단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지, 신뢰의 영역에만 머문다면 그 또한 실제 ‘믿음 생활’에 별반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다. 믿음이란 모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신뢰/동의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실질적 영향을 주는 가치관을 말한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선거에 누구를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며, 그 믿음이 내가 마켓에 널려 있는 상품 중 하나를 고르는데 영향을 미친다. 믿음이란 말 자체는 그릇과 같이 내용물을 담는 형식(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믿음을 말하기 보다는 누구의 믿음인가를 물어야 할 때다. 그리고 누구를 믿는다 함은 그 대상의 가치관(믿음)을 내 것으로 하여 산다는 말이다.

예수는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했다(막 1:14-15). 또한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라 (*ἔχετε πίστιν θεοῦ, have faith of God, 막 11:22*)고 가르쳤다. 이렇게 예수는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의 믿음을 말하건만, 우리말 성경은 하나같이 “하느님을 믿으라”고 번역한다. 하느님을 믿으라? 이것과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다고 실제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나? 아니지 않은가? 그럼 ‘하느님의 믿음’—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1:22의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1:21에서는 같은 표현 ‘믿음을 가지라’(have faith)는 말이 가정법으로 쓰였다: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ἐὰν ἔχητε πίστιν, if you have faith*) 의심치 않으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당연히 하느님의 믿음을 전제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읽으면 “만일 너희가 [하느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라고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의 뜻은?

2. 죄와 회개

믿음의 반대/상반 개념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다. 아무 것도 믿지 않음이 아니요, 두 개 이상을 믿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기 보다는 동시에 다른 대상을 믿는 것으로 이것이 의심이다. 차라리 다른 신(만)을 믿을 때, 이쪽 편에서 보면 불신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 또한 믿음이다. 성서는 내부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 쓰인 글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는 이들을 상대로 말한다고 본다. 마가복음 4:40 에서 예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만, 실은 그들이 바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적은 믿음(little faith)이란 말도 양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깊이가 없기에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행위—그것을 가리켜 적은 믿음, 혹은 믿음 없음이라 말한다(막 4:40; 9:24).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왜 의심했느냐?(마 14:31; 28:17)라는 말이 나온다. 그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크게 부각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재미있는 것은 “의심하다”에 대한 현대 히브리어 번역이다. 주지하다시피,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고 이것이 거꾸로 현대 유대인 신약성서에 히브리어로 번역되었다. 그럴 때 독자들 귀에 익숙한 말(receptor language)로 번역되는데 거기에 쓰인 말이 히브리성서(구약성서)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이든 야훼든 하나만 섬기고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말한다(왕상 18:21). 앞에서 본 구절, 마 21:21 “만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으면...”—여기서 후반부 “의심치 않으면” 역시 “두 의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으로 번역하고 있다. 비록 마 14:31, 마 21:21, 왕상 18:21 에 쓰인 헬라어는 각각 다르지만(διστάζω, διακρίνω, χωλαίνω), 똑같은 히브리 표현(אִי־בְרִיָּה וְאִי־פֶה)을 사용함으로써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히브리성서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곧바로 엘리야의 경고를 떠올리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믿음과 의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렇게 두 개의 의견, 생각, 가치관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의심이요 믿음 없음이다. 복음서에서 하느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생각이다. 십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한 뜻은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야훼가 우리 하느님이라는 주장이다(신 6:4).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당신네들에게는 왕이 그리스도일지언정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차별화 선언이다.

‘하느님의 믿음’이란 표현은 ‘예수의 복음’과 같이 그 출처를 말함과 동시에 정체성 형성에 근간을 이룬다. 하느님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다. (불교 용어로 말하면, 새로운 공사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믿음과 가치관은 바꾸어 사용해도 무방하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와 회개를 시도 때도 없이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만 뺏세게 공부하면 족하다. 허구한 날 가치관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월터 윈크의 말로 다시 정리하면, 죄란 우리 모두가 지배체제의 조건들 아래 살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비록 몸은 이런 지배체제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그 지배이데올로기를 좇아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마음/복음/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이 회개고, 공개적인 세례 의식을 통해 사람들 앞에 이를 알린다. 이것이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뜻한 바고 예수 또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고 남은 것은 ‘의심하지 않고’ 그 마음가짐(믿음)으로만 사는 길이다.

교회란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다. 복음서 이해에 따르면, 그들은 교회 밖에 있다. 오히려 회개한 이들의 모임이 초대 예수공동체로 바로 마가복음을 남긴 사람들이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느님의 뜻/복음을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볼 때, 죄는 개인적 타락보다 더

2. 죄와 회개

심각한 구조악이다. 이 세상이 세운 가치관, 이데올로기, 복음의 영향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음이 죄다. 이런 의미에서 죄란 (역사적 의미의) '원죄'보다 (신화적 의미에서) 더 뿌리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다.

생각해 보기

1. 일부 기독교 교리 중 '원죄'를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 비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말해 보라.
2. 롬 3:22 “예수의 믿음”(KJV)과 “예수를 믿음”(NRSV, NIV)의 차이점을 말해 보라. (cf. 막 11:22).